

농어업 보조금 100개로 통합...경쟁력 위주 지원

## 전남 영세농가 직격탄

현행 288개에 달하는 농어업 보조금 사업이 오는 2012년까지 100개로 통합되는 등 농어업 보조금이 단순 지원방식에서 탈피, 공공성 및 농업 경쟁력 높이기 위주로 바뀐다. 또한, 9가지 유형에 달하는 직불제도 공익형 직불제, 경영 안정형 직불제 등 2가지 유형으로 단순·체계화된다. 이에 따라 개별 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금의 폐지 또는 축소가 불가피해 영세한 전남지역 농가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조급 사업을 오는 2012년까지 100개로 통합하고 보조율을 100%, 50%, 30%, 정액 등 4단계로 단순화한다. 또한, 개별 농업인·농업회사 법인의 시설에 대한 보조는 공동이용시설 보조로 전환하고, 연구·개발(R&D), 교육·훈련, 컨설팅 등에 대한 보조는 확대한다. 위원회는 특히 그동안 논의를 통해 내년부터 화학비료 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와 높은 등급을 받은 한우와 육우, 폐지를 생산한 농가에 지급하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수산업의 경우 내만 가두리 어장의 30%(352ha)를 위해로 옮기고, 연근해 어선 7천여 척 감축과 지난 2008년 중단되었던 연안어선 추가 감축 등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또한, 수산업의 과도한 유류 소비를 유도하고, 자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된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해택도 축소된다. 이 같은 보조금 폐지·축소 등은 영

세한 전남지역 농어업에 큰 타격이 예상돼 지역 농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남 전체 인구의 22.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 가운데 소규모 영세농가가 37%에 달하고 있다. 또한, 어업의 경우는 전국 어업 종사자 중 32%를 차지하고 있고, 구조조정에 포함될 연안어업 비중이 큰 만큼 농어업 보조금 폐지·축소는 전남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7천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축소된다면 아직 생산성 및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농어민은 농업과 어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업보조금 개편은 정기적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면서 폐지, 축소, 확대를 통해 보조금의 효과를 높여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개편방안도 앞으로 협의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해 구체적 개편 내용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경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시국미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광주대학교 정의평화위원회가 27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영주동성당에서 개최한 '제6차 전국 사제 시국기도회'에 사제·신자 3천여 명이 참석해 민주주의의 회복과 인권신장을 촉구했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 서민 150만명 8·15 사면

“임기내 대부분 대학 100% 입학사정관제 선발”

### 이 대통령 라디오 연설

8·15 광복절을 맞아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150만 명이 특별사면되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 초범도 포함된다. <관련기사 3면>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20차 라디

오 및 인터넷 연설에서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어민, 서민, 자영업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며 “한 150만 명 정도 되던 그

런 분들은 예외 없이 100% 다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음주운전 초범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받은 사

람 가운데 처음 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며 “그러나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상습범이므로 사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교통사고, 검문 불응, 뺑소니 사고 등에 연루된 사람들은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 대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과외수업이나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공교육만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소위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좋은 대학들이 내년도 입학시험부터 논술시험 없이 입학사정관을 통해 뽑고, 또 농어촌에서 지역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임기 말에 가면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입학사정관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 현행 성적 위주 대입제도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내년 광주비엔날레 주제 ‘이미지의 일생’

내년 9월 열리는 제8회광주비엔날레(9월3일~11월7일)는 ‘이미지의 일생(The life is image·가제)’을 주제로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미지를 선보이게 된다. 마시말리아노 지오니 예술총감독은 27일 광주비엔날레 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제112차 이사회에서 “인터넷 사진 공유 사이트를 통해 1시간에 5만개의 이미지가 공유되는 ‘이미지의 범람 시대’를 살

아고 있는 현대의 모습을 사진, 영상, 회화 설치 등을 통해 담아내겠다”고 전시 기본 구상을 밝혔다. 또 개막 전 사전프로그램으로 아시아 지역 작가들의 작품과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간하고, 전시 도록을 먼저 만든 뒤 세계 전문가, 평론가들의 의견을 들어 전시의 질도 높이기로 했다. 지오니 감독은 또 제8회 대회가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는 내

년에 열리는 것과 관련 “최근 망명동을 둘러봤는데 수많은 상설의 이미지가 남아 있고, 이를 기억하려고 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면서 “우리를 떠난 사람들의 이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유적인 형태로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18일~11월4일)의 예산을 기존 45억5천만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고, 임기가 만료된 강사를 감사를 연임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금호타이어 파국 치달나

### 706명 정리하고 노사 입장차 못 좁혀

금호타이어가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국 위기로 치달고 있다. 27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25일 노조에 “정리해고 합의 재요청서”와 함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위한 고용안정·노사공동발전위원회(이하 고발위)”를 27일 개최하자고 노조측에 요청했다. 노조는 그러나 “일방적 정리해고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이날 고발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조는 또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8년 입단협에서 신선타고 고발위는 고용불안과 생존

권을 위협하는 기구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정리해고를 목적으로 고발위 개최를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심각한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인상 등 노조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측이 제시한 정리해고 인원은 모두 706명으로 이는 금호타이어 전체 근로자 3천945명의 17.9%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또 단체협상안에 따라 60일 이내에 합의 요청서를 전달하고

고용안정·노사공동발전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정리해고를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조측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면서 “조합이 응하지 않는다면 회사 기준에 따라 정리해고 명단을 확정해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24~26일 시한부 전면파업에 이어 27일부터 생산량을 50% 줄이는 투쟁을 벌이는 한편,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향후 투쟁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어서 파업 국면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여름해당 패키지  
취미/양식 27,000원 부터  
(세금포함)  
예약실 ☎: 228-4711-2  
대표전화 ☎: 228-8009

Made in Nature  
로즈워터로 속살까지 촉촉하게!  
해피마스 로즈 에센스 바디워시